

금강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지시

정현을 시장, 문화재 야행 태풍대비 및 행사준비 철저 당부도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3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관광부서로 업무소관 변경을 검토해 경관조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관리 허술로 인해 용안 생태습지공원이라는 좋은 관광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안생태습지의 관리를 하천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광지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고 설명하며, "용안생태습지의 업무소관을 문화관광산업과로 이전하여 해바리거나 핑크물리야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경관 조성 등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다가

오는 주말 (4일~5일)에 익산 문화재 야행이 열린데, 현재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어 큰 걱정이다."라고 말하며, "다행히 태풍이 문화재 야행 기간과는 겹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날씨예보를 예의주시하며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문화재 야행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야행을 찾는 관광객도 점차 많아져 순환버스 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순환버스 운행시간 홍보를 비롯해 이번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난 주말에 개최된 효행스테이 캠프가 좋은 호응을 얻었다."면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해 함라 한옥마을과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익산시가 효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는 최근 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평생학습축제·익산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장대,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취업 결실

8명 학생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에 입사

군장대학교(총장 이승우)가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운영한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이 비로서 결실을 맺었다.

군장대에 따르면 청년취업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 후 첫 성과로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장대와 (주)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에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3개월간 군산교육

위기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군산지역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2차 전기자동차화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해 왔다.

이름 통해 총 수료생 16명 중 12명의 학생이 전기차 2차전지 자동차 장비 전문생산업체인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지에서 현장 교육을 받았고 최종 8명의 학생이 최종합격 본사에 입사하게 됐다.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이현철 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400여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며 "군장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육성과 함께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우 총장은 "전기자동차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성장을 계속해 나갈 분야이며 특히 전지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에 군장대는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익산교육 발전 논하다 100인 원탁회의 성공리 마쳐

익산시는 최근 익산교육 발전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회의는 학생과 시민들이 현재의 익산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훈 교수의 '새로운 일상, 달라지는 학생,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 강의도 진행됐다.

이어 각 테이بل별로 소주제를 다시 정해 해당분야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유 토론을 벌이면서 대안 제시에 나섰고 테이블별 주제에 대한 발표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거론된 10대들의 의견으로는 진로체험활동 확대, 스트레스 해소 공간 필요,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개설, 진로 탐색 기회 필요 등이 있었으며 유학생들 의견으로는 외국학생이 한국생활 중 받는 스트레스, 유학생 교육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마을 돌봄 공동체 서비스, 저소득층 학생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익산시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 등 익산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지원정책 및 익산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아이들이 배려 받고 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다함께 즐기는 학습 축제 성황리

익산평생학습축제·익산교육공동체한마당 마무리

익산시는 최근 중앙체육공원에서 '평생교육으로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익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익산평생학습축제·익산교육공동체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모두 즐기는 학습 축제로 120여개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번 개최식에서는 익산행복학교 문해학습자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유공표창 및 문해백일장대회 시상도 진행됐으며, 원광대학교 댄스동아리팀의 축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비롯해 익산교육지원청 송리골마을학교, 학부모공동체, 과학체험한마당 등 75개 부스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됐다.

특히 관심 있는 평생교육 주제 15분간 자유 발표하는 평생학습 4인 4색, 성인문해한마당, 문해공동체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무대 공연으로는 댄스, 농악, 무용, 통기타, 오카리나, 팬플루트, 난타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발표회를 비롯해 여성회관 학습동아리,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이색적인 버스킹 공연 등 48개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행사는 익산시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그동안 배운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상황 종료시까지 최선 다해 달라"

군산시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활동 근무자 격려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 의장단은 지난 30일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소독 초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18일부터 28일까지 경기·인천지역에서 총 9건이 확진 판정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군산시 또한 유입방지를 위해 이동 경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차단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농업기술센터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철저한 방역초소 운영과 자

율적인 방역, 공무원과 축산농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서수면 거점소독 초소를 방문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며 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경구 의장은 "주말도 없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근무자들의 숨은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며 "상황 종료시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시민열린광장' 개최

익산시가 10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민열린광장'을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민열린광장은 시장과 시민이 대면하면서 지역 현안 및 주요 민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이해와 공명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 방식은 시민이 익산시의 정책 및 관련 사업, 민원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이 질문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을 수렴한다.

시민열린광장은 익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859-5734)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북귀어귀촌센터, 창업과정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오양수)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1기 귀어귀촌 창업과정'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센터 교육장(군산시수협 5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수산관계법령, 수산업과 어촌의 이해, 어촌사회의 부가치 창출방안, 어촌체험마을(군산 선유도어촌계)을 방문, 현장체험·견학(1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수자에게는 42시간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주중 기초교육이 어려운 예비 귀어귀촌인들을 위해서는 11월 한달

동안 주말교육(1일 7시간, 토요일)을 함께 실시한다.

특히, 내수면양식에서 각광받고 있는 흰다리새우, 메기, 동자개, 멸종위기어종인 '종어' 등의 양식기술 실무에 대해 직접양식장을 견학하고 있는 대표자를 강사로 초청하며, 양식기초 이론과 양식장을 직접 교육생이 방문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신청 방법은 전라북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xeallife.org), SNS, 모바일, 팩스로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450-665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